

“경제·문화·관광 활성화로 ‘살고 싶은 동구’ 만들 것”

반환점 민선 8기
임택 광주 동구청장

인문도시 구축 도시브랜드 강화
마을 자치·복지체계 구축 성과
체류형 관광도시·복지사업 박차

“광주시 동구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해 구도심 이미지를 탈피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임택 동구청장이 민선 7기부터 8기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추구해 온 목표이자, 앞으로 2년동안 완성해 나갈 목표를 내놨다.

10일 임 청장은 광주일보와 진행한 민선 8기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보람있는 2년이였다”고 힘써 말했다.

‘인문도시’로서 동구만의 색깔을 갖추고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마을 자치, 복지체계 구축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동구는 예술·문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 무등산국립공원권, 자산유원지권 등 권역별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활성화했다. 1인가구 전수조사와 쪽방촌 지원사업, 동구 맘택시 사업, 차매 관련 지원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가꾸는 마을사랑채와 푸른마을공동체, 마을예술제 등을 지원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결과 동구는 지난 2020년 9월 인구 10만명을 넘은 뒤 최근 3년에 걸쳐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 0.960명을 기록해 광주 평균 0.844명을 뛰어넘었으며 청년(만 19~39세) 인구 비율도 28.1%까지 늘었다.

임 청장은 이같은 성과는 그가 내걸었던 ‘인문도시’라는 도시 브랜드에 오롯이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명한다. 임 청장은 “인문도시란 동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를 결합해 만든 동구만의 브랜드”라며 “옛 5·18의 나눔·연대·대동 정신과 문화 예술도시로서 자산 등을 바탕으로 인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도시, 나눔과 소통이 활발하고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주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완수하고 싶은 목표로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을 첫 손에 꼽았다. “광주에 오면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 가장 뼈아팠던지라 역량을 집중해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광주에서 하루라도 자고 가고, 관광뿐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미디어아트와 결합한 야간 관광을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동구는 5·18민주광장에 ‘빛의 분수대’와 ‘음악분수’를 잇따라 조성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빛의 읍성’을 개관했다. 이후로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빛의 뮤지엄’과 ‘빛의 거리’를 조성하고 무등산 증심사 인근 ‘외재 문화유적’을 야간 관광

지 번신시키는 사업도 순항 중이다.

복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까지 ‘중장년 이상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일상적 고립, 사회·경제적 고립 등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에게 일상생활·식사·동행·건강·안전 지원, 주거 편의 등의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경제적 활력과 문화적 활력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며 “신산업 유치, AI헬스케어 산업 투자 등을 지속해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문화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동구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은 2년이 동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명소부터 명품길까지...광산구 관광 새로워진다

테마형 투어버스·황룡강생태길
고려인마을 명소화 관광객 발길

‘테마형 투어버스’, ‘광주 대표 명품길 조성’,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고려인마을 관광코스’ 운영 등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발을 건 어부였다.

광주시 광산구는 올해부터 지역 관광, 여행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광산 알리오 투어버스’를 도입, 시범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첫 시범 운영을 시작한 ‘광산 알리오 투어버스’는 역사, 생태, 문화 등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테마형 투어버스다.

5월에는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장륙습지부터 넓은 초원과 양 떼 등 말들이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송산목장, 월봉서원, 임곡 딸기농가, 1913송정역시장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코스를 구성했다.

6월에는 송산습마장, 광산구 양궁체험장을 도는 등 코스로 구성해 최근 인기 있는 체험형 관광을 포함시켰다. 임곡동 딸기농가에선 딸기를 직접 수확하고, 송산습마장에서 말을 탈 수 있게 한 것이다.

양궁체험장에서는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과 선수의 지도를 받아 활 쏘는 체험을 진행한 가운데 2021 도쿄 올림픽 여자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안산 선수가 현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안산 선수는 시민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사인을 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는 다양한 명소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관광 코스를 추가로 발굴해 올해 9월과 10월 두 차례



광산구가 새롭게 시도한 테마형 투어버스, ‘광산 알리오 투어버스’가 다양한 체험, 지역 명소를 연결한 특색 있는 코스 구성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더 광산 알리오 투어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기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조성 2년차를 맞은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태길30’도 지역관광에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송산근린공원부터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동곡 두물머리까지 약 12km(30리)를 문화, 예술, 생태가 어우러지는 광주 대표 명품길로 만드는 사업이다.

도보로 총 세 시간이 걸리는 황룡강생태길을 테마별 세 구간으로 나눠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채우고, 보행 및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으로 개선한 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황룡강생태길 30리의 변화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 특색, 차별성이 드러나는 테마형 코스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고려인 동포의 역사, 문화가 녹아 있는 고려인

마을 명소화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고려인마을 이야기 관광코스를 발굴, 운영하고, 공공미술을 접목해 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매력을 높이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 결과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발굴해 가는 곳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새로운 관광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많이 찾아오고, 또 오고 싶은 ‘골쥬미 시 광산’의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광주시 북구가 지난 9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북구 제공>



광주시 서구가 지난 9일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2개 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 북구·서구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각각 ‘종합대상’·‘복지보건대상 및 인재육성대상’

광주시 북구와 서구가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수상했다.

북구는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10일 광주시 북구와 서구는 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수상을 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 등을 발굴해 지방 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민간부문 최고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가다.

북구는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579억 원 등을 재원으로 지역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 달성’,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지방 자치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복지보건대상 및 인재육성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 ‘서구형 스마트통합돌봄’을 운영하고 가족돌봄청년 수당 지원,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릴 소비 촉진, 천원국시, 도심 맨발로(路) 조성, 공유주차장 확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인재육성분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세컨대)’ 등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서구의 분석이다.

지난해 구청장 직통 문자폰 ‘바로문자하랑께’을 도입하고 18개 행정동을 4개 거점동과 연계동으로 나눠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종합대상과 주민자치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2개 상을 수상한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